

2006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 정 연 설 문

- 스타트 강원 : 경제 선진도 삶의 질 일등도」를 향하여 -

2005년 11월 21일
제163회 도의회(정례회)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
심상기 의장님과 도의원 여러분 !

오늘, 2006년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도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을 쏟아 주시고 도정에 대해서도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제163회 도의회 정례회가 도민의 뜻과 기대에 부응하는 알찬 성과를 거두게 되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저 또한, 예년과는 달리 금년도 정례 도의회가 갖는 특별한 의미를 되새기면서, 도지사로서 도민을 위해 「초일념(初一念)」의 자세로 일하겠다는 각오를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짐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도의원 여러분 !

「강원도 중심, 강원도 세상」을 향한 도민들의 한결같은 여망을 담고 출범한 제3기 민선도정도 어느덧 3년 반이 되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이 기간은 우리에게 숭한 시련과 난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도전과 새로운 시도를 계속 해 왔습니다.

도민 모두의 지혜와 힘으로 장애를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승화시키는 가운데 강원도정은 한층 더 성숙해졌고, 기울인 노력만큼 알차고 소중한 성과도 이루어냈습니다.

2010년 동계올림픽 도전을 통해 강원도와 평창을 세계지도에 당당히 올리고, 지금 다시 2014년을 향해 뛰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가장 기초적이고 핵심적 현안인 교통망도 우물‘井’자형 광역망과 국도·지방도의 터널화·교량화 전략을 통해 큰 가닥을 잡고 「2시간대 생활권」에 바짝 다가서고 있습니다.

3각테크노 전략의 심화, 14개 전략산업단지 추진, 700개에 달하는 기업유치, 「폐특법」 개정, 접경지역 계획의 정비·추진 등 지역 경제발전의 새로운 전기 또한 마련했습니다.

관광객 7천만명 시대를 열었고, 농어업 소득도 전국 상위권에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원7+3플랜」과 「제3차 강원도종합계획」을 기반으로 지역별 각종 특별프로젝트와 핵심사업의 추진을 통해 새로운 틀에서 강원도 발전을 견인하는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모든 것이 의원님들과 300만 내외 도민 모두의 의지와 열정과 땀으로 이루어낸 결실이자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도의원 여러분 !

지금 우리 강원도는 짧은 기간내의 획기적인 변화와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여건은 열악하고 어렵습니다. 인구는 감소율이 둔화되고는 있으나 그래도 여전히 줄고 있습니다. 지역의 총생산은 최근의 가파른 상승율에도 불구하고 그 절대수준은 아직도 낮습니다.

지방재정 여건 또한 그리 여유롭지 못합니다.

복지·환경·문화 여건의 집중적인 개선과 진전이 있었으나 해야 할 일은 아직도 산적해 있습니다. 핵심적인 전략과 시책, 사업들이 역동적으로 시도되고 전개되고 있습니다만, 그 성장 동력이 보다 탄력을 받는 데는 아직도 그 에너지가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런 한편, 우리가 오로지 집념으로 공을 들여왔던 교통망 확충은 앞으로 5년 내외의 기간에 거의 완성도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최근 유행·확산되고 있는 21세기형 웰빙 생활행태는 우리에게 맞닥뜨린 또 하나의 새로운 변화입니다.

더더욱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이제는 경제적 동력이 정부로부터 민간으로 옮겨 가고 있고, 우리가 의지하고 주목해야 할 대상 또한 이제는 민간시장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당연히 이제는 한 지역의 발전은 중앙이나 외부지원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우리

스스로 아래로부터, 그리고 내면으로부터 자전력을 충전시키고, 동력화하고 시장에서 승부를 내는 주체적이고 자주적인 역량에 의해 좌우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제가 보는 우리 강원도의 현실 진단이고, 이러한 환경 변화야말로 우리 강원도에 있어서 새로운 도전과 발전의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보는 이유입니다.

또 하나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수립하는 모든 계획, 짜고 있는 모든 전략의 틀, 시행하고 있는 모든 시책과 사업의 귀결점은 바로 도민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와 목표를 얻어내고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모든 시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그 방향과 처방이 잘못된 것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향후과제에 대해 제가 갖고 있는 또 다른 인식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도정 전반에 보다 진정성을 갖고, 더 많은 고민과 더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의원 여러분 !

저는 이러한 현실과 과제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제부터 「뉴-스타트 강원」이라는 이름으로 「경제 선진도·삶의 질 일등도」를 만드는데 전력을 투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경제 선진도·삶의 질 일등도」를 지향하는 「뉴-스타트강원」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현재 11,000불 수준인 도민 1인당 평균소득을 2015년까지 전국 평균 전망치를 상회하는 3만불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인구 또한 증가추세로 반전 시키면서, 이러한 소득 수준의 향상 자체가 단순한 총량적 성장이 아니라 각 지역의 균형발전과 각 개인의 「삶의 질」의 균점을 이루고자 하는 심대한 꿈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뉴-스타트 강원」은 단순히 추상적인 구호가 아닙니다. 강원 도정의 어떤 새로운 목표 그 자체도 아니고, 어떤 새로운 계획이나 전략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강원도의 비전과 발전전략, 그리고 그 틀과 계획들이 다 세워져 있고, 그 해법 또한 다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뉴-스타트 강원」은 앞서 말씀드린 도민소득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저를 비롯한 도정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주체들이 '무엇에 중점을 두고, 어떻게 사고하고, 어떻게 움직이고, 무슨 수단을 강구하느냐' 하는 하나의 「행동 강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의원 여러분 !

이제부터 「뉴-스타트 강원」을 위해 도지사부터 달라지고 도정 시스템 또한 혁신시켜 나가겠습니다.

저 자신, 일반적인 결재 권한과 책임을 하부조직에 대폭 위임하고 경제와 삶의 질 부문의 핵심적인 일에 전념하면서 「강원도 주식회사 CEO」로서의 꼭 필요한 일은 직접 챙기고 세일즈맨으로서 현장 중심으로 뛰겠습니다.

도청의 조직과 인력활용 또한 「전문가중심형·팀중심형·성과중심형」으로 시스템과 체질을 바꿔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특히, 앞으로 다음 몇 가지를 핵심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경제 선진도」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

첫째, 기업의 유치와 육성, 그리고 서민경제 활성화에 매진하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3각테크노 전략과 지역별 특화단지, 기업도시와 전략산업단지를 본 궤도에 진입시키고 완성하는데 모든 노력을 경주하면서,

지금까지의 700개의 기업유치에 이은 제2단계의 기업 창업과 유치전략을 위해 모든 요원들이 국내외를 막론하고 총체적인 세일즈에 나서겠습니다. 아울러, 「기업 氣살리기」 차원에서 정착기업에 대한 지원제도를 보다 내실있게 「맞춤식」으로 지원을 강화하고 재래시장, 소상공인 대책, 일자리 창출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둘째, 「관광분야」에 있어서도 기업유치와 같은 맥락에서 종합리조트·테마파크·개별관광시설을 포함한 민간 투자유치에 모든 역량을 투입하고 관광마케팅의 질적 고도화에도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새로이 추진하면서, 각 지역별 관광시설 투자 대상 지역을 지정하고,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해서 이를 토대로 본격적인 유치 세일즈를 펼쳐 나가겠습니다.

관광 마케팅과 수용태세 확립을 위해 마케팅 전담팀 운영, 「관광R&D파크」 조성, 관광 아카데미 운영 등도 역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농어가 소득」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올려 놓을수 있도록 「농어촌활력화 대책」을 종합 접근 방식으로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존의 「청정성·효능성·진품성」을 토대로 한 특성화·차별화 전략을 보다 심도있게 추진하고 특히, 지리적 브랜드 사업에 박차를 가하면서 농촌에 관광과 체험 등을 접목하는 「그린투어리즘」을 한층 강도높게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새농어촌 건설운동」을 더욱 심화·발전시키면서 이를 근간으로 하여 기존의 틀을 뛰어넘는 마을혁신시스템(VIS)을 전면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강원경제 프로젝트화」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은 누가 시켜서도 아니며, 누가 해 주겠다고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10년전부터 꿈꿔왔고, 우리도민 스스로 시작했고,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때문에 모든 지혜와 역량을 발휘하여 우리 손으로 반드시 그 끝을 봐야 합니다. 이러한 각오로 2014년 동계올림픽이 기필코 유치되도록 저부터 선두에서 확실하게 챙기겠습니다.

아울러, 올림픽은 대회개최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 얻어질 수 있는 직간접적인 파급효과를 극대화 하기위해 「강원경제 활성화 프로젝트」를 만들어야만 하며 이를 위해서 별도의 전문적인 연구용역도 실시하여 전략화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삶의 질 일등도」를 위한 우리의 노력입니다.

「삶의 질」은 기본적으로 그 근저에 「소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소득은 경제적 삶을 영위하는 기초자산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삶의 질」은 경제적 풍요에 더하여 환경과 문화, 그리고 복지수준이 그 가늠을 하는 척도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 부분들은 특히 우리 강원도적인 특성일 수밖에 없고, 강원도적인 최대의 자산인 것입니다. 이것이 기반이 되지 않고, 또 이 자산을 잃어버린다면 강원도로서는 존재 그 자체의 의미가 없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문에 특별히 중점을 두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환경분야」는 「환경수도」를 지향하면서 특히 「한강수계 특별대책」을 별도로 마련하여 대외적으로 관철시킬 것은 시키고, 우리 스스로 보존대책을 강구할 것은 강력하게 시행해 가면서 생태계 지역의 지정·관리, 경관형성사업, 아름다운 강원도만들기 사업 등을 한층 더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문화」는 유·무형의 자산 모두를 「강원문화인프라 10개년 계획」으로 확실하게 보완 발전시켜 강원도의 정체성과 독창성이 발양되고, 유지 발전되도록 진력하면서 그것이 관광과도 접목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사회복지부문」은 고령화 대책, 장애인 복지, 저소득층 대책, 여성정책, 보육정책 등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재정의 어려움을 들어 지금 그 대책을 게을리 한다면 이후 더 크고 많은 부담을 감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경제가 발전해도 상대적으로 이 분야의 간극을 메워주지 않으면 올바른 「삶의 질」을 추구했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14%를 차지하고 있는 사회복지 예산을 각 분야별로 단계적으로 30% 수준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남보다 앞선 「강원도형 선진복지」실현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정책들은 결국 달리 표현한다면 경제와 자연환경, 문화, 복지가 함께 어우러지는 21세기형 「녹색성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정의 모든 수단과 노력을 다해 바로 이 강원도형 「녹색성장」을 실현해 나가겠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의지이자 구상입니다.

존경하는 도의원 여러분 !

이상과 같이 「뉴-스타트 강원」을 위한 틀을 짜고, 모든 행정력을 경주해 나가면서 다음과 같은 사업 추진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고자 합니다.

기업도시, 혁신도시, 대학도시, 평화도시 등 각종 미래 지향적인 신도시 조성사업과 환동해권 발전계획(Peace sea비전), 호수문화관광벨트, 중부내륙권 개발계획, 자유무역 지역개발, 폐광지역 2단계 종합개발, 접경지역 3대 모델화 등의 제반사업을 본 궤도에 확실하게 올리고 가시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내 모든 지역과 계층을 세밀히 살피 나가겠습니다.

특히, 「기초행정」을 강화하여 주민의 기본생활에 관한 부분을 세심히 배려해 나가면서, 오랜기간 주민불편·불만요인이 되어왔던 도시계획과 토지이용규제 등도 현실에 맞게 전면 재정비·재편작업을 추진하고 「재난·재해」예방에 주력하면서, 고객만족 행정서비스를 통해 지역의 크고 작은 민원 해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일관되게 고민하고 집착해 왔던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새로운 「도민정신 창조」와 「도민통합」, 그리고 「미래인재육성」등을 강원발전의 내면의 동력으로 삼아 「강원도의 자존」을 지키고, 「강원도의 쫓대」를 살리며, 「강원도의 가치」를 높이고, 「강원도의 이익」을 보장해 나가겠습니다.

진정한 「강원도중심, 강원도 세상」을 향해서 스스로 채찍질하고 도정의 모든 주체와 도민 모두의 참여를 통해 미래 지향적이고 역동적인 「강한 강원도」를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의원 여러분 !

이와 같은 기조아래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3,803억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2조 2,072억원 보다 7.8%가 증가된 것입니다.

증가된 주요원인은 국가균형발전 지역개발사업과 사회복지 분야 등의 국고보조금을 금년보다 더 많이 확보하였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정부에서 시행하는 도내 국책사업도 금년보다 300억원이 증가한 1조 5,800억원을 확보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처럼 예년보다 국비를 많이 확보한 것은 집행부의 전방위적인 노력도 있었지만, 의원님들을 비롯한 도 출신·도 연고 국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의 결과입니다. 이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강원경제의 총량적 성장」 「도민의 소득증대」 「삶의 질 향상」 「도전역의 균형발전」을 구체화하고 가시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예산은 총 2조 633억원으로, 금년 1조 9,055억원 보다 8.3% 증가한 규모로

- 농수산개발, 지역경제개발, 지역균형개발 등을 위한 「경제개발비」가 전체예산의 36.9%인 7,617억원이고,
- 사회복지, 생활환경개선 등 「사회개발비」에 34.5%인 7,121억원, 공무원 인건비 등 기본적 경비인 「일반행정비」에 16.4%인 3,378억원,
-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소방행정 등 「민방위경비」에 4.4%인 906억원,
- 재정보전금·예비비·채무상환 등 「지원 및 기타경비」에 7.8%인 1,611억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은 총 3,170억원으로, 금년보다 5.1%가 증가한 규모로

- 강원전문대 특별회계 74억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1,206억원,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47억원, 공기업 특별회계 1,84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은 지방재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통해 시책과 사업이 강도 높게 추진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태풍 「나비」 피해복구비를 비롯한 예산변동 사항을 정리하기 위해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이번 정례회 회기 중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심상기 의장님과 도의원 여러분 !

우리는 지난 몇 년간 정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잘된 것도 있었고, 미흡한 것도 있었습시다만, 분명한 것은 시대적인 기운과 기세가 우리 강원도에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과 호기를 놓치거나 주춤거리지 말고 한발 더 내달아서 반드시 강원도 중흥의 일대 전기로 삼아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우리가 가야할 비전과 목표도 정해졌고, 행동강령인 「뉴-스타트 강원」도 이제 짜여졌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가진 모든 역량을 집주시키고,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오로지 미래를 향해 나가야 합니다.

여기에 지역, 지역이 따로 일 수 없고, 도민 한사람, 한사람이 따로 일 수 없습니다. 적어도 지금부터 10년후인 2015년을 전후하여 우리는 분명코 새롭고 위대한 「강원도 역사」 「강원도 세상」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읍시다. 이를 위해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가 더욱 채찍질해 주시고, 함께 참여하고, 같이 뛰어 주시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 11월 21일

강원도지사 김 진 선